

대학위기, 효율적 예산집행이 비상구

교육부문 예산 감축 신중한 검토 우선돼야

대학도 위험지대

대학이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일
마진 있었던 단국대의 부도 사건 이후
대학들은 제각각 살아남기 위한 방안
마련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
에 따르면 전국 1백87개 4년제 대학의
외채가 자그마치 1억 6천만 달러에 달
한다니 현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학도 '부도'의 안전지대가 아닌지
라 저마다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비교적 사정이 낫다고 하는 우리학
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감안,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예
산감축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실제
로 97학년도 지출예산과 98학년도
지출예산을 비교해보면 무려 67억원이
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월 23일 열린 98학년도
실무부시장 회의에서는 부서별로 예산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에 대한
후속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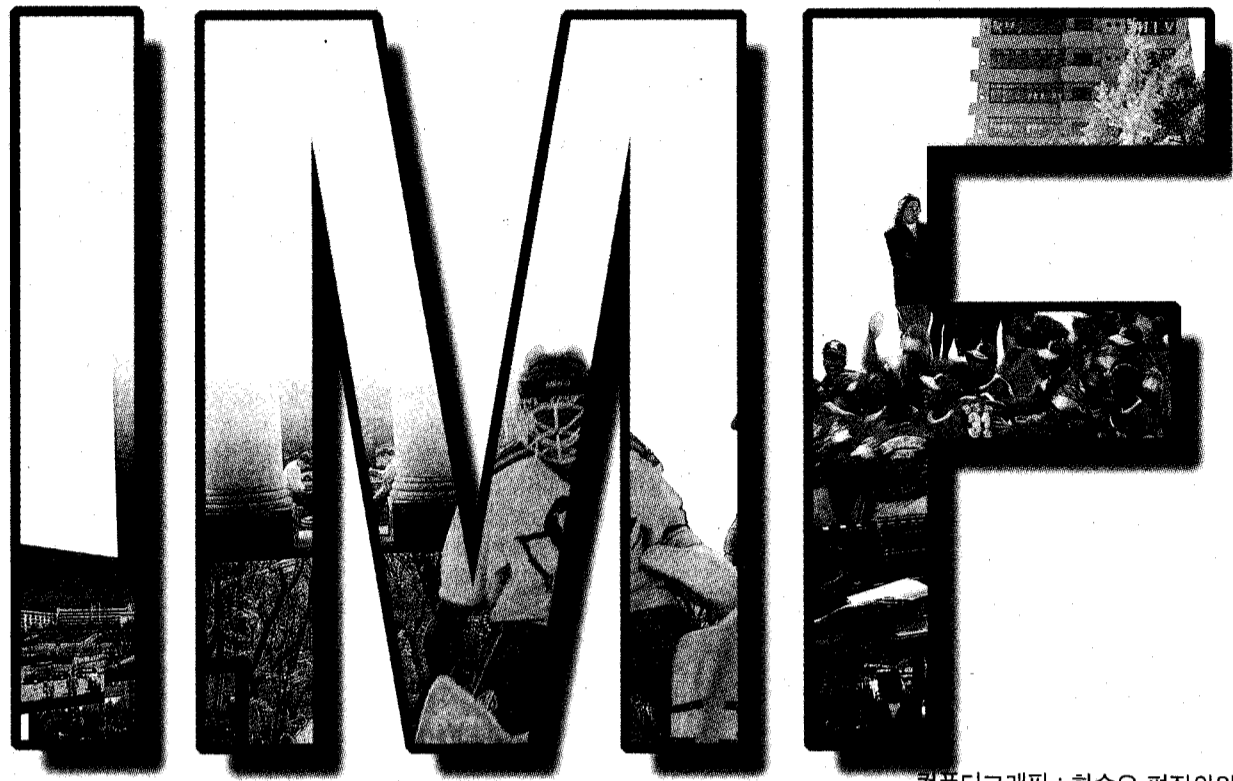
각 부서가 내놓은 예산절감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의 경우
예산편성이 있어서 건축재정과 계로베
이스 예산편성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
예산관리 측면에서 외국기자재 도입을
억제하고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을 실
천할 것 등을 안으로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학내 일부 기관의 독립채산제와
수입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시사
하기도 했다.

자구책 마련 불가피

교무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방안
으로 강사 수료를 억제할 것을 밝혔다.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으로 전공과목
의 강사배정을 축소하고 기존에 12시
간이던 전일교수의 초과 강의 제한시
간을 15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
다.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발표한 사



컴퓨터그래픽: 한승우 편집위원

무치는 형광등을 부분 소등하고 가로
등을 격등 점검하며 전화, 호출기 통화
차단 등을 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외에 학내 각 부처들 또한 최선의
예산감축 정책을 마련, 시행단계에 접
어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실행으로 옮
기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일기도 했는데, 일례로 3월 초 서울캠
퍼스 중앙도서관 열람실의 조명을 기
존의 4분의 3정도만 밝게 학생들의 원
성을 사기도 했다.

이준혁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려운 때에 절약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학이 교육관
련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캠퍼스의 대학본부
를 제외, 학생기관이 사용중인 전화선
의 호출기 통화를 차단, 학생회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위의 두 사안은 총학생회의
건의와 학교당국의 협의과정을 통
해 기존대로 복구되었다.

부서별 긴축정책 발표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책정된 98학년도 예산안 내역
을 살펴보면 18억 8천3백여만원이 장
학금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억 3천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 연구비와 연구관리비를 포함한
총연구비의 경우도 작년보다 27억원
가까이 감축 책정된 반면 교육의 비용
은 오히려 97학년도보다 1억원 이상
상향 책정되었고 덧붙여 이번 예산 책
정 중 수입부문을 분석한 결과, 우리학
교 예산 중 일부를 차지하는 재단전입

금이 34억원이나 하향 책정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내역은 98학년도 예산안 전
체를 두고 볼 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98학년도 전체
예산이 교육부문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감축정책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
다.

교원 보수용 지출과 실험실습비처럼
다소 상향 조절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타 내역의 감
축방안들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실험실습만 보아도 그렇다. 실험실
습은 최소의 인원이 한 실험에 투입되
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험이 많은 의·치·약학과
의 실정을 보면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대의 경우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

로 하는 학문인 만큼 해부학 실험이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신 1구당 18명에
서 많게는 20명까지 투입이 되는 실정
이다.

효율적 예산집행 중요

또 당초 99년 완공을 학생들과 약속
한 제2의료원도 재정난으로 인해 사실
상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필요한
실험기자재 대부분이 외산임에도 불
구, 외제품 수입을 학교에서 절제시
키고 있어 사비를 털어 기자재를 구입
해야 할 때도 종종 발생한다.

병원실습시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립
되어 있지 않아 치대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환자를 구해다 치료를 해야하며,
약대는 96년 신설된 한약학과와 같은
실험실습 수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으로 인해 한주에 이주일
분량의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총학생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늘 학
교측이 제시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
과를 가지고 기획실과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98학년도 예산안이 다져지
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대학도 경영이라는 말을 요즘들어
많이 한다.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실시
하는 대학평가가 대학간 경쟁에 큰 영
향을 끼치다 보니 효율적 경영마인드
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누가 뭐래
도 대학은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
는 요즘, 투자할 곳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고 쓸모없는 것은 과감히 절감하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우선될 때 대학간
경쟁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강남이 기자)

※ 제로베이스(zero base) 예산편
성: 토대자료가 될만한 기존 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예산을
편성

경희 space



설 곳이 없다

신입생 환영주일을 맞은 98학번들은 수업후 마땅히 설
곳이 없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가 IMF 장학기금 마련
의 일환으로 마련한 '경희비지회'가 행사 기간동안 학
생회관 로비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 학생들의 휴식
공간마저 빼앗은 이번 행사가 진정한 경희학의 화합과 신
입생 환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면안내

- 3 시사
세정부 첫조각 점감
5 사회
IMF이후 노·사·정 화합의 길
6 테마 기획
M.T(Membership Training)
7 학술
시대에 따른 대학이념 및 가치변화
8 문화
독립영화제로 본 우리의 인권
9 경희의 이름으로
자주빛 군단 '경희 농구부'
10~12 Free Style
'이름'

이주의 학사

Table with columns for dates (16일(월) to 21일(토)) and rows for '가상대 학계장', '복지장학생 제출일', '인복위장 후보등록'.

대학도 이제 적성 따라 간다

'적성우선전형' 도입, 98학년도 입시평균점 공개

수능을 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
다

교무처는 지난 12일 수험생들의 개
인별 적성을 입시에 최대한 반영한다
는 방침 아래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
게 될 전공관련 시험 한가지 만으로 학
생들을 선발하는 '적성우선 전형'을 99
학년도 특차모집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99학년
도 대입기본계획안으로 특차전형 기간
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우리학교는 99
학년도부터 2가지 유형으로 특차모집
을 실시할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유형은 '수능없는 입시'로
세부 전형내용을 살펴보면 △적성우선
전형 △특수자격증소지자 전형 △국제
화추진 전형 △학교장추천 전형 △표
행자 및 밝은사회봉사자 전형 △소년
소녀가장 전형 등이다.

특차모집의 두 번째 유형은 '단단계
전형'으로 수능과 학생부 성적으로 선
발하는 전형이다.

이 가운데 99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는 적성우선 전형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성적에 상관없이 자신
의 적성에 가장 적합한 학과를 선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어를 좋아하면 논술고
사목을 통해 인문계열 학부로, 외국어 과
목을 좋아하면 영어시험을 통해 영어
학부 및 상경학부로,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시험에 응시해 이학계열 학부로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타 학생부 및 구술면접 성적
등도 반영되지만 수능성적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이 이 제도의 가
장 큰 특성으로 꼽힌다.

다음으로 특수자격증소지자 전형은
9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 자기소개
전형이 발전된 것으로 차후 결정될 기
준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전형이다.

토크 및 토의 성적만으로 전형하는
'국제화 추진 전형', 우수 모범생을 대
상으로 한 '학교장추천 전형', 불우 소
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한 '소년소녀
가장 전형'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
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지난 13
일 98학년도 특차 및 정식모집 합격자
의 수능 평균점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성적
을 기록한 학과는 한의예과로 377.5점
을 기록했다.
대학입시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수험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개한 98학년도 수능성적 총평균점은
작년보다 60.4점이 상승했다.
학부별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 평균
과 커트라인이 모두 상승한 학부는 서
울 15개, 수원 13개이고 평균과 커트
라인 모두 변동없는 학부는 서울의 2
개 학부이며, 평균과 커트라인 모두 하
락한 학부는 서울 6개와 수원 3개 학
부이다.

이번 입시에서 주목할 사항은 법학
부의 경우 평균점이 작년 수능상위
5.1%에서 올해 3.1%로 2.0% 상승했
고, 인문정보학부도 평균점이 작년 대
비 0.6% 상승했다.

특히 생명지리학부는 평균점이 작
년보다 7%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획득했
다.

예체능계열 학부는 서울캠퍼스의 경
우 커트라인이 50%이상씩 상승하기도
했다.
98학년도 입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성적 면에서 눈에 띄는 상승 현상
을 나타냈고, 입학정원이 작년보다 8
백여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국제화추
진 전형 실시 결과 토크 6백30점 이

상, 토의 9백40점 이상의 학생들이 선
발되어 국제화 전형에 적합한 인재들

상, 토의 9백40점 이상의 학생들이 선
발되어 국제화 전형에 적합한 인재들

Table with columns for '캠퍼스' (Seoul, Suwon) and '대학명', listing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average sc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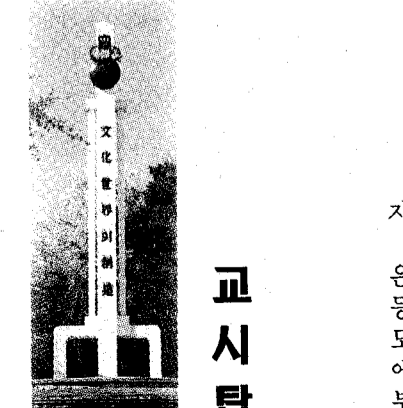
* * 표시는 98학년도 신입학부임.

선발 - 양성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로 분석된다.

또 의예과와 법학부를 가, 다군으로
분할 모집함으로써 평균점 상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 외에도 주요대학 합동입시설명
회, '입시설명회 및 목련음악회' 등의
홍보 전략으로 학교 이미지를 확고히
한 것도 높이 평가됐다.

학부(과)별 수능평균점은 다음 표와
같다.
(강남이 기자)



교시탐

새내기들이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은
지 벌써 3주째 접어들었다.

이맘때쯤이면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
은 신입생들이 등록금 영수증과 주민
등록증을 제시하고 도서관을 출입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증
에 현금 및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첨
부시키는데 한 달여정도의 기간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학생증 발급에 대한 일정한 체계가 없
어 새내기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전
망이다.

학생증 발급행정을 담당하는 사서과
와 올해 방침에 따르면 학원이 정해진
27일이 1차 접수기간이며 개강 후 일
주일 사이인 6일까지를 2차 접수기간,
그 이후는 수시접수로 처리해 놓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들이 사서과
의 이러한 계획과는 무관하게 일을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리오

정치행정학부의 경우는 신청서를 일
괄적으로 사서과에 제출했지만 접수기
간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납부하였으
며 지금도 신청서가 들어오는대로 쌓아두
었다가 한꺼번에 넘기는 형식을 취하
고 있다. 또한 이학부의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에서 임무를 행하는 것이 아
니라 담당 교수들이 처리를 하고 있
으며 생활정보학부의 경우에는 아예 담
당처가 없어 학생들이 사서과 창구에
모여들어 제각기 신청을 해야 한다.
(김현중 기자)

후 업무가 가장 바쁘기 마련이다. 하지
만 올해 학생증 발급에 대한 업무가 학
생처에서 사서과로 이월되면서 입학관
리과와 사전 정보전달도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고, 그렇다 해도 신입생을
위한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일원적인
체계가 당연히 잡혀 있어야 하는 문제
이다. 게다가 신입생들의 학생증 발급
에 관한 행정업무는 매년 입학식 때마
다 수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일처리는 지양
되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대학주보 47기 수습기자 모집' (Recruitment of 47th Trainee Journalists for University Weekly). Includes details about the application proces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